현실직시 대신 현실교체

(시편 56:1~13)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현실직시 대신 현실교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현실직시 대신 현실교체'

인류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오해되는 단어가 현실직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공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직시하거나 도피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소설이든지 드라마나 게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아니지만 인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도 내가 직시하기 전까지는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있는 현실을 내가 직시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직시하는 그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오해가 너무나 보편적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걷어버릴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거센 풍랑 이는 밤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뭇잎 같이 조그마한 거룻배 하나를 의지한 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 이는 바다 위의 거룻배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생존을 위해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한다는 보편적 개념을 사용한다면 제자들의 행동은 현실을 직시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거센 풍랑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현실외면이고 도피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나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지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랑과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은 정말로 현실을 직시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대처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인식 자체는 정확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할 상황임을 직시하고 반응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깜깜한 밤에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여 생긴 두려움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이해보자면 ‘왜 현실을 직시하였느냐? 직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더욱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현실직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풍랑을 직시해서 현실로 삼았느냐는 것이고, 왜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힘을 부여했느냐고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풍랑이 자신들을 한 순간에 집어삼키고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 이유는 풍랑을 직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자 풍랑은 현실로 승격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현실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님이 주무신 것은 정말로 현실에 대한 도피였을까요? 주님은 몽상과 망상과 꿈과 이상 속에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분이라서 식민치하의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독립을 위한 어떠한 몸짓도 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맞서서 책임지고 개선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은 완전히 현실도피형의 인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계셨습니다. 다만 직시하신 대상이 제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풍랑을 직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현실이 아니셨습니다. 풍랑에게 현실이 될 자격을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직시하셨습니다. ‘직시하다.’라는 말은 곧 마음의 시선이 우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우회하는 것은 곧 다른 것을 보고나서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시는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보는 것만이 현실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으로 직시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가 현실이 되셨고 그에 따라오는 모든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참새 한 마리의 생사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에 풍랑을 맞은 모든 제자들의 목숨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축된 현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직시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시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내가 직시하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의 시선이 첫 번째로 닿는 대상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미 현실이 된 사실은 직시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게임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직시하였기 때문에 풍랑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깊은 잠을 잤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자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 철야기도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물리적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현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당사자이면서도 승천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직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도 잠에서 깨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거인으로 보았고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현실을 직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몽상가이고 망상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현실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의 현실로 승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무거워지고 나에게 압박을 가해옵니다. 그 무게감이 느껴질 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게 됩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말입니다. 무엇에게 현실의 자격을 부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 현실은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개선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직시하는 대상을 바꾸면 현실은 바뀝니다.

회사에서 사장님께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에 갈 수 있게 된 아들과 딸이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꾸중을 들으면서도 속에서는 웃음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직시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야단치는 것은 현실의 자격이 박탈당해버린 것입니다. 동료직원들이 보니 야단맞고 나오는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직시할 때에 다른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더 이상 세상의 사실들은 무게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돈이 없는 상황을 직시하여 현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의 자격을 띄고 무게가 되어 나를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해결법은 돈을 벌어서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현실 교체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 시는 다윗의 작품 중에서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시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작품을 특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제에는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문구도 나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먼 상수리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먼 곳에 있는 비둘기는 다윗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했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신분이 노출되고 위기에 처하는 것을 사무엘상 21장에서 보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다윗이 돌팔매질로 무찌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가드로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안 그래도 가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는데, 제 발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과 신하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갇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시를 지었습니다.
미친척해서 죽음을 모면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에게 억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에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기에 진실을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3~4절과 10~11절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가운데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다윗은 계속해서 현실교체를 위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지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마음이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매달리는 것은 곧 바라보고 있음을 뜻합니다. 매달린 상황에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 없습니다. 내가 김 사장에게 매달려서라도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다른 곳에 먼저 들려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곧바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하다의 번역은 마음으로 매달린다는 표현입니다. 곧 직시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시함으로서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추격에 두려워하였고, 블레셋 왕에게 의탁하려 했으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빠져나갈지 빨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물리적 상황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직시하여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참새 한 마리보다 월등히 귀한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나 블레셋 무리들의 목숨조차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현실로 삼은 나에게 어떻게 그들이 위협이 될 수 있겠냐는 고백입니다. 현실을 바꾸어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다윗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혈육을 가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쫓겨서 해외로 도주 중입니다. '어찌하리이까'가 아니고 이미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과 신하들도 자신의 신분을 알고서 명분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미친 척을 해가며 겨우 살아남은 처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과 계시록 3장 7절에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관을 인간의 의지로 꺾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의 영역을 넓히고 구축해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걱정할 때에는 돈이 없는 상황을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말씀을 붙이면서, 돈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 산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되뇝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거할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현실의 주인공이 되도록 내 스스로가 자격을 부여해줬기에, 돈은 자격을 부여받은 만큼 강력한 힘으로 나를 찍어 누를 것입니다. 건강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직시하며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팔방 어느 곳에도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땅의 상황을 앞에 두고 현실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고 갈아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시함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만한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 풍랑을 직시하지 않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주님이 곁에 계심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풍랑에게서 현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자격을 발탁당한 상황들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호주의 캥거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뉴질랜드가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현실로서의 가치가 없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호주에 캥거루가 멸종된다고 해도 안타깝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실제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미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암이 걸렸다고 하면 우리는 치료를 받던지 암에 대해 기도를 하든지 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암이 나의 현실로 작용하는 힘과 자격을 박탈해야만 합니다. 내 몸을 직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면서 블레셋에 억제당하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현실로 바꿔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그것을 직시하며 그것에 현실이 될 수 있는 힘과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된 현실은 언제나 마음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잘 되면 날아갈 것 같다가도 잘 안 되면 납덩이 같이 무거워집니다. 어떠한 사실에 현실의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사실에 현실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직시하는 것들만이 현실이 되기에 직시할 대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직시하여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눌려서 현실의 무게가 무겁다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자신입니다. 마치 스스로 머리 위에 바위를 올려놓고 더욱 힘을 가해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시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를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였던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시선의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직시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 그것들을 현실로 승격시키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현실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현실의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들은 내게 아무런 무게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를 동일시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

어떤 것도 직시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은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직시하며 현실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안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려는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는 말대로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총화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그것을 직시함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돈이 없는 상황, 몸이 아픈 상황,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상황 등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현실로 승격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그것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상황을 직시하는 내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태어나서 세상을 외면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과 동일시함으로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시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풍랑 속에서 주무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될 것입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의 말대로 내가 외면한 이 땅의 상황은 하나님이 직시하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시하실 때에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것이고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현실은 직시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교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직시하는 대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직시하는 대상을 바꿈으로서 현실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외면한 모든 상황과 대상들은 하나님이 대하시는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